

● 5월 12일 나의 하루는...

자-112-19

행복

오늘은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성신여대에 가서 처음으로 쇼핑을 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편한 옷들만 입고 싶어했고. 어두운 계열의 옷만 입었는데,
 요즘들어 치마도 입어보고 싶고, 밝은 색의 옷도 입어보고 싶고, 그래서
 여태껏 인터넷에서 산 티셔츠만 입었던 내 심정을 엄마도 아는지,
 나와함께 성신여대 쪽으로 옷을 사러 가게로 약속했다. 한번도 그렇게
 나가서 직접 보고 가격도 좀 내는 옷을 시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첫 쇼핑은 정말 내게 신세계였다. 최근에 동생이 학교에서 일을
 내서 우리가족이 꽤 윤택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잘 해결된 후 기분도
 좋음, 성신여대에 가서 처음으로 엄마와 쇼핑을 하고 옷을 꾸민다고 하니,
 기분이 뭔가 정말 너무 행복했고, 삶의 여백달라.. 그래서 여지들이 쇼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평소에 내가 정말로 입을 옷이 정말 없었는데,
 아예 옷도 사고 단화도 사고 했으니, 내가 좋아하는 배색의 가방을 만리
 갈 때도 아예 너무 착각한 옷들이 아닌 그래도 좀 되는 옷들을 입고 갈 수도 있니.
 아무튼 오늘은 정말 너무 행복했던 날인 것 같다. 난 지금까지 이광수를 총
 12번 만났는데, 1년 후, 내가 이 일기들을 다시 보게 됐을 때, 라면 그때
 몇번째 만남일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오랜만에 감성적으로 일기를 써보니까, 앞으로
 뭔가 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작은 노트에 기분이 안좋을 때,
 특별한 꿈을 꿔볼 때, 정말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쓰는데, 그 작은
 일기들이 하나씩 써져서, 몇십년 후에는 기록도 만나겠지만, 노트에나마 작게 써
 소중히 기뻐들이 하나하나 다시 새겨져 새로운 추억으로 남을 걸 생각하니 정말
 설렌다. 이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의 나, 앞으로 있을 몇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떻게?